▪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3월 9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참고하여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5남, 7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3월 수요집회는 손성현 전도사가 '시편을 거닐다' 라는 제목으로 인도합니다.

봄학기 성서학당이 3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1교시- 오경 (김재흥 목사), 2교시- 마가복음 (김기석 목사)

주변 환경을 잘 정리정돈하고 사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정연희 한상경 김현주 이광욱 정복순
* 3/13,20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왕영순 임미심 송동준 문복순
* 설 거 지 봉 사 : 조은나 김태환 하진솔 노준우
* 다음 주 설거지 : 이정림 이성경 조지연 권미숙
* 떡 대 접 : 김가은 (돌, 김남홍 · 선우영)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3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모든 순례자의 동행이 되어 주시는 주님, 사순절 순례길에 들어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은혜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빛줄기를 따라 가게 하시며, 지난날의 어두운 허물을 벗어버리고 밝고 맑은 영혼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순례를 마치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대립과 반목,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이에게 길이 되어 주어야할 종교가 분쟁과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는 이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피를 나눈 동족 간에 또다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고 있는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교 독 문 ····· 84. 히브리서11장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3(통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다함께

♠ 성경봉독 ····· Ⅰ. 라9:1-5 Ⅱ. 막9:2-9 ····· 한대훈 선생 박홍재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씀 ····· **Ⅰ. 눈물씨앗** **Ⅱ. 빛을 만나다**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경연 김윤수 박상호 김희진 박홍재 박규석 박경선 방 민 김중수 이순정 방 준 배삼순 권호진 서수진 임창선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이우엘 전충길 박진혁 곽새롬 황지현 조문규 진정숙

월정헌금:
김경수 김승현 김수진 김지윤 박범희 박미영 백성래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이봉옥 이유선 방극숙 이현순 장재영 김재영 조병주 조은나 조재현 이지훈 정재윤 정미경 류건형 이주은 문홍일 박윤숙 무명

감사헌금:
하진채 이우엘 안길상 이형숙 박범희 박미영 이증자 전 융 김훈동 유경순 윤정덕 구성실 김성한 조영순 정복순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이유일 김미희 김경수 김승현 김수진 오현정 곽권희 강순배 정재윤 정미경 권혁순 박혜경 무명

녹색꿈헌금: 문금석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김필순 박효선

	장 혜 숙	백 혜 숙	정 두 리	장 혜 숙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정 경 례
	임 정 자	최 경 미	정 복 순	차 혜 심
	문 영 혜	이 명 희	이 명 희	곽 혜 자
	안 정 숙	진 정 숙	문 금 석	조 병 주
	박 홍 재	곽 권 희	곽 권 희	김 순 복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김 정 애
	이 순 정	김 금 순	이 순 정	김 금 순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김 필 순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안 홍 숙
	정 영 선	이 현 숙	이 현 숙	송 양 진
	이 영 란	박 미 영	방 극 숙	유 혜 경
	박 혜 경	조 항 미	조 항 미	정 현 숙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마음으로 읽는 글

쓰러진 나무

나희덕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십 년을 견뎠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 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 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곡선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빛 소름,
십 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 참된 빛을 따라 사십시오. 언제나 빛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십시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 함 께 : 아멘. 빛을 등진 채 세상을 어둡다 탓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빛을 마음 가득 채우고 살겠습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어둠의 기운 가득한 곳에 밝은 기운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기도 : 박성실 권사 시편을 거닐다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곽권희 권사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홍순구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조문규　이건식　문영혜　진정숙　신영신
	헌금위원	방문성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내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

며칠 전부터 산책을 한다. 겨울엔 너무 추워 도무지 밖에 나가 걸어볼 용기를 못 내고 있었고, 이제 날씨가 풀리니 몸이 근질거린다. 내 몸이 나한테 봄이 왔으니 바깥바람을 쐬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때마침 작년 가을부터 청주시에서 준비하던 산책길 조성이 끝났는데, 우리 일터에서 5분 거리다. 산책을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다.

산책 시간은 아들 사린이가 검도 하러 가는 시간으로 잡았다. 그 시간은 사린이도 운동을 하고 우리도 운동하는 것이다. 산책하러 나간 첫날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고, 조금 무리를 해서 5킬로미터쯤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왕복 10킬로미터 가까이 걸었나 보다. 안 걷다 걸었더니 다음날은 다리가 좀 뻐근한 것이 알이 밴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산책 시간에 그 뻐근한 근육에 마음을 모으고 춤추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걸었더니 곧 풀려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걷고 있다. …

오랜만에 혼자 나서자니 호젓하기도 하고 좀 허전하기도 하다. 그래서 작은 시집을 한 권 들고 나간다. 아내와 나는 성격이 다르다. 산책하는 걸 가지고 말하자면, 아내는 목표를 정하면 조금 무리가 된다 해도 그 목표까지 걸어간다. 반면에 나는 같은 상황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조금 쉬었다가 가는 편이다. 가져간 시집이라도 손에 있다면 여기저기 뒤적거려보거나 앉아서 잠깐 단소를 불어본다. 오늘이 그런 경우다. 아내도 없는 호젓한 산책이니 그냥 나가기가 뭣해서 도서관에서 시집을 한 권 빼 손에 들고 갔다. 옛날에 나온 문고판이라 작고 가볍다. 꼭 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 무겁지 않은 시집이 제격이다. 그 시집을 들고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흘러가는 대로 두고 걸어가자니 참 기분이 좋다.

그러다 문득 우리 도서관 '지혜의 등대'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서적도 좀 읽히는 편이고 소설도 꽤 빌려가기는 간다. 그 인기 없다는 인문학 서적도 우리 도서관에서는 사랑을 받는데 시집은 영 인기가 없다. 한 번은 내가 아내한테 그런 의문을 얘기했더니 아내는 현실이 각박하면 시집이 손에 안 잡히는 법이라고 시대가 각박하고 각자 사는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을 했지만 그 뒤에도 나는 못내 시집이 홀대받는 것이 아쉽다. 이번에도 50여 권 시집이 도서관에 들어왔는데 신간도 제법 있었다. 물론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 가진 시집도 한 삼백 권은 족히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읽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언젠가 고은 시인은 '시(詩)'라는 글자를 풀이하면서 한자로는 말(言)과 사원(寺)이 합해져서 된 말이 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는 '말의 사원'이다. 다시 말하면 말의 가장 높은 단계라 할까 가장 거룩한 경지라 할까 그런 것이 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우리 도서관에서 홀대받는다.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참작한다면 더 이해가 잘 안 된다.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는 시편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150편이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성서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왜 시를 가까이하는 그리스도 신앙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일까. 성서에 나오는 시가 아니라서 안 읽는 것일까. 아마 그런 이유보다는 시를 맛 들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말하자면 상징과 암시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시라면, 그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내야 하고, 상징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방향이나 속맛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이 든다는 말이다.

내가 시를 제대로 접한 것은 목사가 되고 난 뒤였다. 한 교회 목사가 쓰시는 주보를 받아보는 정기 구독자였는데, 주보가 올 때마다 그 속에서 한 편에서 두 편의 시를 보았다. 처음에는 시를 제외하고 다른 글들만 읽거나 시를 읽더라도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보를 받으면 시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시가 되었다. 소리 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노트에 베껴 놓기도 했다. 그리고 서점에 갈 경우에는 시집코너를 순례하듯 꼭 거쳐서 나오곤 했다. 시의 맛을 조금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나중에 내가 목회하는 시골 교회에서 주보를 낼 때 그 첫 면에 꼭 시 하나씩을 찾아서 손으로 쓰고 짧은 감상문을 적는 일을 여러 해 계속 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옛날보다 시 읽는 일이 많이 뜸해졌다. 그런데 오늘 산책길에 펼쳐본 헤세의 '흰 구름'이란 시집 첫머리에 번역자가 쓴 해설 글의 한 부분이 나한테 다시 시를 꼭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옛말이 되어버렸을지 모르나 전에는 시인이란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을 말했다. 그래서 천재란 이러한 시인에게만 쓸 수 있었던 말이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적어도 시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리라.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설교자는 시를 쓸 주제가 아직 못 되는 것 같으니 열심히 읽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다른 사람이 시를 안 읽는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읽어야겠다.

도서관에 들어온 새 시집들은 나를 쳐다보고 말하고 있었나 보다. 어서 우리, 즉 시를 맛들이라고…… .

– 홍승표 (청주 길벗교회 목사)